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슈퍼카 U
수상내역	2011 울산 전통문화 스토리텔링 공모전 단편시나리오 부문 우수상
작가	노혜원, 양창원
분야	단편시나리오
기획의도	<p>국내 최고의 공업도시로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한 축으로 상징되는 울산이 가진 업적의 이면에는 도시가 가진 아름다움이 철저히 가려진 면이 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울산의 절경들과 명소들은 중공업과 자동차의 매연에 침식된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본 작품에서는 울산의 대표인 테크놀러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슈퍼카 U가 울산 12경을 누비며 미션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울산이라는 도시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최고의 공업도시 울산'이 아닌 '절경으로 수놓인 아름다운 울산'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기획으로 구성해 보았다.</p>

시나리오 부문 우수상

제목 : 슈퍼카U(작가 : 노혜원, 양창원)

S#1.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전경.

국가대표 평가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경기에 집중한 대호와 계속해서 사방을 주시하며 안절부절 하는 유박사.

유대호 : 아빠, 뭐야?

유박사 : (겸연쩍게 웃으며) 응?

유대호 :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야.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제발...휴...

유박사 : 그...그래. 미안하구나.

그러면서도 사방을 둘러보는 유박사.

이때 유박사의 시야에 접근하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보인다.

유박사, 벌떡 일어선다.

유대호 : 아빠~!

급히 대호에게 USB를 건넨다.

유박사 : (심각하게) 대호야~ 이거 받아.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애.

유대호 : 또...? 아빠 정말.....

유박사 : (말 자르며, 긴박하게)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어. 잘 들어! 이걸 잘 갖고 있거라.

형사1 : 미래 자동차 유필승 박사님 되시죠?! (경찰 신분증 내밀며) 당신을 회사
기밀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하는 대호. 고분고분하게 형사들의 연행에 응하는 유박사.

유대호 : 아빠...?

유박사 : (연행 중 고개 돌리며, 나직하지만 또박또박하게) 대호야... 네 엄마... 아직
기억하고 있지?!

유대호 : 아빠... (점점 애처롭게) 아빠~~ 아빠~~~

S#2. 미래 자동차 특수 연구실

울산 자동차 공장 전경.

특수 연구실. U를 놓고 한창 연구 중인 박사와 직원들.

김박사 : 유박사는?

박조수 : 휴가세요~ (시계 보고는) 지금쯤 아들이랑 축구 보고 있겠네요~

갑자기 건장한 사내들이 들이닥친다.

박조수 : 당신들 뭐야?

사내들은 순식간에 연구실 안을 장악한다. 그 중 리더격으로 보이는 사내1이 김박사에게,

사내1 : (U를 흘깃 쳐다보며) 저거군. 키 넘기시죠.

김박사 : (단호히) 자네들 누군가! 무슨 짓이야?

사내1 : (미간 찌푸리며) 그건 알거 없소. 시간 끌지 말고 키를 넘기시오.

이 때, 갑자기 U의 시동이 저절로 켜지고, 흠칫하는 둘.

요란한 엔진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연구실 내의 시선들이 모두 U에 집중된다.

사내들의 시선이 돌아간 틈에 재빨리 게이트를 개방하는 김박사.

순식간에 게이트를 통해 밖으로 달려 나가는 U. 황당한 표정의 사내들.

사내1 : 뭐해! 어서 뒤 쫓아!

S#3. 마이클 K 일당의 사무실

수하 하나가 급히 들어와 보고 한다.

수하1 : 유박사가 방금 연행됐습니다.

마이클K : U는?

수하1 : (난색) 그... 그제...

마이클K : 놓쳤어?

수하1 : 도망쳤습니다.

마이클K : 누가 차를 빼돌린 거야?

수하1 : 그...그게 차가 알아서...

마이클K : 알아서?

수하1 : 네.

마이클K : (미소) 유박사가...AI 장착에 드디어 성공했단 말이지? 녀석이 숨겨놓은 마지막
부품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로군 (수하2에게) 유박사에게서 뭔가 알아냈나?

수하2 : 전혀 입을 열지 않는답니다.

마이클K : 흠...그 외엔?

수하2 :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연행할 때 꼬마 하나와 함께 있었답니다.

마이클K : 꼬마? (잠시 생각하다 번뜩) 아들 녀석이다! 그 녀석을 당장 잡아와!!

수하1,2 : 네!!! (퇴장)

S#4. 울주 경찰서 앞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대호.

형사 : (O.V) 미안하지만, 지금은 면회를 시켜 수가 없구나. 박사님께서 워낙 중범죄에
연루되신지라 아직 면회가 안 된단다. 그러실 분이 아닌데...우선 전화번호를
알려다오. 내가 꼭 연락주마.

짜증이 치솟는 대호. 옆에 있던 쓰레기통을 걷어찬다.

순간 대호를 둘러싸는 건장한 사내들. (S#2 사내들)

대호 : (당황) 어? (쓰레기통을 바로 놓고는 겸연쩍게 웃으며) 죄송합니다...

슬그머니 그들 속에서 빠져나가려하는 대호.

사내1이 고개 짓하자 대호에게로 다가오는 사내들.

대호 : (뒷걸음질) 왜...왜 이러세요?!

이 때, 굉음과 함께 나타나는 U. 대호 앞에서 드래프트 하며 차문이 열린다.

냉큼 U에 올라타려는 대호. 대호가 가까스로 탑승하자 힘껏 출발하는 U.

사내1 : 어서 쫓아!!

S#5. 구영로

정오 때라 한적한 구영로. 타이어 가게 앞에서 팔자 좋게 자고 있는 강아지 셋..
그 앞을 바람처럼 지나쳐가는 U과 마이클 일당의 벤. 잠깐 고개 들고 고개 가웃거리고
다시 잠든다.(동시)

U 차 안. 멀뚱거리며 앉아있던 대호. 갑자기 U의 인공기기를 이리저리 훑어보며,

대호 : 어떻게 차가 그냥 움직이는 거지... (카메라 렌즈같이 생긴 U의 시각 센서에
원격 조종인가? (손 흔들며) 저기요?

U : 대호, 안녕?

대호 : (흠칫하며) 으익~! 누...누구...?

U : 누구? 이거 섭섭한데? 아빠가 나에 대해 말한 적 없어?

대호 : 아빠가...? 아빠를 알아?

U : 당연하지. 나한테도 아빠니까.

대호 : 뭐?

U : 슈퍼카 U. 정말 들어본 적 없어?

대호 : U...? 슈퍼카....? 아! 아빠가 연구하던 그 AI 자동차 말야? 그런데 그게...진짜
완성이 된 거란 말이야? 말도 안돼.....!!

U : 눈으로 보고도 못 믿겠다면 나더러 어찌란 거야...쩍...

대호 : 아...아냐...그게 아니라...벌써 개발됐다는게... 그런데 왜 아빠가 그 기밀을
유출시키셨단 건지...

U : 아냐!

대호 : 아니라구?

U : 누명이야. 함정에 빠지신 거야. 잘 알잖아. 박사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란 거.

대호 : (끄덕인다) 응...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U : 박사님을 구해야지.

대호 : 어떻게? 너랑 나랑 둘이서?

U : 왜? 자신 없어?

대호 : 그런 게 아니라...난 이제 14살 먹은 중학생...

U : 날 뭐라고 부르지?

대호 : 응?

U : 내 이름이 뭐냐구.

대호 : 슈퍼카...U라고...

U : 바로 그거지. 넌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아버지가 만들어낸 슈퍼카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니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는 거라고! 넌 지금 이 슈퍼카를 몰고 아버지를 구해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대호 : (조금 용기를 얻은 듯) 으...응...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할 것 같아. 너와 관련된 일인 것 같으니 자초지종을 알아야 계획을...

U : 계획? 우리 대호, 꽤 어른스러운데?

대호 : 쳇, 이래봐도 내가 형이라구.

U : 하하... 알았어 알았어. 하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하나... 우선 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지?

곧바로 대호의 눈앞으로 홀로그램 영상이 펼쳐진다. 움찔하는 대호.

U : (U의 개발 과정. 그 중심에 유박사가 있다.) 난 미래자동차에서 유박사님이 개발한 세계최초의 인공지능 하이브리드카야. TV나 영화 같은데서 나 같은 자동차 본 적 없어?

대호 : 응 있지...

U : 그런 걸 생각하면 돼. 물론, 그런 고물차들과 비교되는 게 조금은 불쾌하지만 말야. 어쨌든 너도 알다시피 지난 15년간을 박사님은 오직 날 만들기 위해 바치셨어. 3년 전부터 AI 개발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난 성공적으로 완성돼갔지. 박사님의 기술이 워낙 뛰어난 것이다 보니... 그 기술을 탐내는 곳이 많았어. 미국과 러시아는 엄청난 액수와 명예를 보장하며 박사님을 모셔가려고 했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지만, 박사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어.

대호 : 왜...?

U : 박사님은 자신의 부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 나는 박사님의 기술을 통해 자동차로 태어났지만, 나 같은 배, 나 같은 군사용 장비가 있다고 생각해봐. 돈으로는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거지.

대호 : 어! 위험해!

정면으로 벤 두 대가 불쑥 나타나 차로 정면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U의 시야) 좌측 좁은 골목이 포커스에 잡히자, 곧바로 그 골목으로 급커브를 틀어버리는 U.

이 때 잠시 차안에서 휘청거린 대호의 주머니에서 USB가 떨어진다.

딱 승용차 한대 너비만큼의 골목을 아슬아슬하면서도 정확하게 달리는 U.

차폭이 넓어 골목 안까지 쫓질 못하는 마이클 일당.

U :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네... 지금 숨바꼭질할 시간이 없는데 말야.

대호 : 일단 하던 얘기 마저해줘.

U : 그래. 어쨌든 박사님의 연구는 거의 완성단계에 왔어. 아니 사실은 완성됐지.
하지만 박사님은 연구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숨기시고 계셨어.

대호 : 왜?

U : 아레스 때문이야.

대호 : 아레스?

U : 세계적인 무기 밀매 조직이지. (마이클 K의 위성사진) 이 자는 조직에서 아시아 쪽을 담당하는 마이클 K 자야. 유박사님께 누명을 씌워 제거 한 다음, 미래자동차 임원들을 매수해 기술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우릴 따라오는 자들도 녀석의 수하들이지. 그는 먼저 나를 뺏아 박사님의 기술을 카피할 생각이었어. 자신들이 제조하고 있는 무기에 이 기술을 융합해 전 세계에 팔고자 한 거야. (고심하는 유박사) 다행히 박사님은 그 사실을 알고 함께 일하는 연구원 몇몇을 제외하고는 완성사실을 숨기고 계셨어.

대호 : 매수당한 임원들이 이 기술을 몰래 넘길까봐 숨기고 계셨던 거구나...

U : 맞아. 그리고 그들이 박사님 자신을 노린다는 걸 알게 되자, (U의 주요 부품을 빼내는 유박사의 모습.) AI를 제외한 부품들을 울산 곳곳에 숨겨두셨지.

대호 : 그럼...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U : 현재의 나로선 박사님을 구출하기엔 무리야.

대호 : 뭐??? 슈퍼카 어찌고 하면서 아빠를 구해야한다고 한건 너잖아!

U : 말끝까지 들어. 나는 지금 완전한 형태의 슈퍼카가 아니야. (자신의 내부 설계도 홀로그램, 미완성 부품들 깜빡임) 박사님이 숨겨놓은 부품들을 장착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라고. 혹시 아빠가 너한테 따로 하신 말은 없어?

대호 : 응? 따로 하신말씀?

U : 잘 생각해봐. 나머지 부품들을 숨겨놓은 힌트를 어딘가에 남기셨을 거야.

대호 : (또다시 급회전) 으아~~

이때 바닥에 떨어진 USB를 본 대호. 유박사가 그것을 전해주던 모습을 떠올린다.

대호 : 아 USB!

U : USB?

대호 : 경찰아저씨들이 아빠를 잡아가기 전에 전해주신 게 있어!

U : 그거야! 부품 위치가 거기 있을 거야. 어서 연결해봐!

USB를 U에 연결하는 대호.

홀로그램을 통해 'Password No.1 - 황금 빛 바다'이라는 메시지가 보여 진다.

U : 울산 바다 정보 분석. (울산, 일산, 주전, 진하 해수욕장 검색 됨) 관련 정보 4곳

발견. 가까운 순서대로 이동 경로를 정할게.

S#6. 일산 해수욕장

바닷가를 도는 U와 대호.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 듯하다.

U : 여기도 아닌 것 같아.

대호 : 바닷가 어딘가에 숨겨놓은 게 아닐까? 아빠가 바다 속에 부품을 숨겨놓으셨을 리는 없고...

U : 전방 1Km 이내로 접근하면 부품에 내장된 마이크로 신호가 잡히게 돼있어. 하지만 전혀 잡히질 않아.

대호 : 하아...그럼 이 암호가 가리키는 게 뭘까?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지긋이 파도를 바라보는 대호. 순간 대호의 뇌리에 산뜻한 봄바람에 물결치는 듯한 황금빛 평원이 스친다.

대호 : 바다...황금 빛...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거다! 신불산!

U : (신불산 검색) 신불산?

대호 : 그래!

U : 억새 평원? 황금빛?!! 그렇구나. 억새풀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마치 바다에 치는 파도 같아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목표 지점 신불산으로 변경. 짹 잡아!

한편 일산동을 순찰 중인 노경사와 김경장.

김경장 : (한숨) 아~~~ 이 지겨운 순찰~~~

노경사 : (꾸짖으며) 어허~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 줄 모르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김경장 : (적당히 빈정거리며) 네~ 네~ 알겠습니다~~~

순간, 그들 앞을 지나가는 U. 운전석 대호의 모습을 푹푹히 목격하는 노경사.(Slow 모션)

노경사 : 김경장~ 저 차 쫓아!!!

김경장 : 네?

노경사 : (홍분) 어서!!! 분명 꼬마가 운전하고 있었어!!!

김경장 : 꼬마요?

노경사 : 어서 밟아!

U의 뒤를 쫓는 순찰차. 한참을 선회한 마이클 일당의 벤도 끝이어 그 뒤에 도착.

S#7. 방어진 순환도로 → 울산 고속도로 → 신불산 산복도로 코스

질주하는 U과 그 뒤를 쫓는 마이클 일당과 노경사.

대호 : (사이렌 소리에 뒤를 돌아보며) 어? 왜 경찰이 우릴 쫓지?

(자신이 앉은 곳이 운전석임을 인식) 내가 운전하는 줄로 아나봐~

U : 소용없어~ 운전석이 비어 있어도 저들은 쫓아올 거야!

대호 : (머리 헝클며) 어떻게 좀 해봐~~~

더욱 속도를 올리며 앞선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제치는 U. 노경사의 경찰차도 이를 따라하다가 차도에 정차 중이던 견인차와 가볍게 충돌. 충돌 여파에도 별 충격이 없는 기색의 견인차 운전수. 고개를 숙 돌리곤 그들을 뺏히 본다.

반면, 마이클 일당은 끈질기게 U를 따라붙고 있다.

대호 : (억지로 뒤를 돌아보는 불편한 자세로) 계속 쫓아오는데...

U : (후방 카메라 작동, 추격자들 모니터링하며) 아무래도 그냥 따돌리긴 힘들 것 같아.

대호 : (모니터 보고는 '이런 게 있으면 진작 좀 틀지'라는 똥한 표정 짓고는) 그럼 어떡해?!

U : 손잡이를 꼭 잡아!

대호 : 뭐? (급커브에 휘청) 으어어~~~

건민목장으로 방향을 돌리는 U.

험한 길 상황에 심하게 진동하는 차체 안. 미처 손잡이를 잡지 못한 대호의 슬랩스틱.

목장 동물들을 기막히게 피하며 각종 동물우리의 잠금 장치들을 해제하는 U.

마이클 일당이 당도했을 땐 이미 목장 동물들이 대거 풀려나와 더 이상 쫓을 수 없게 된다. 한 편, 충돌했던 견인차에 끌려 이동 중인 노경사와 김경사의 똥뺨은 표정에서 F.O

S#8. 신불산 억새 평원

산길에 정차 중인 U. 옆에서 구토중인 대호.

U : 괜찮아?

대호 : 내가 괜찮아 보이냐?

U : 뭐, 인간들은 보통 괜찮다고 하지 않나...예의상...

대호 : 으유... (불만 섞인 표정으로 뭔가 말을 뱉으려다가, 순간 눈앞의 경관에 멈칫하며 탄성) 와...

대호 앞으로 억새 평원의 황금빛 물결이 미려하게 펼쳐져 있다.

감탄하며 이를 지켜보는 대호. 이때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한 파편.

(대호의 기억) 억새 평원 위를 해맑게 뛰어다니는 어린 대호. 누군가 따뜻한 시선으로 대호를 지켜보고 있다.

U : 신호가 잡혀.

대호 : 신호?

U : 내 부품들은 1Km내에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신호를 송출하도록 되어있어. 우측 400m 정도 위치야.

대호 : 아... 알았어!!!

U가 알려준 곳으로 가는 달려가는 대호. 풀숲을 이리저리 가르다가 소방함 하나를 발견한다. 소방함을 열자 특이하게 생긴 타이어가 드러난다. 킁킁거리며 타이어를 U 앞까지 끌어오는 대호.

대호 : (난색) 야~ 이거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려는데)

대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U가 부분적으로 동작하여 스스로 타이어를 장착한다.

U에 올라타는 대호. 모니터에

『adhesive 타이어 부착』이라는 문자와 함께 기기 업그레이드가 모니터링 된다.

이어 'Password No.2 - 승천하는 고래' 라는 다음 메시지가 등장한다.

S#9. 마이클 일당 아지트

초조한 내색의 마이클 K. 전화보고를 받는다.

마이클 K : 어떻게 됐냐? (언성 높이며) 뭐?! 또 놓쳤단 말이야?! (언성 낮추며) U가?

알았다. 대기하고 있어! (전화 끊고 인터폰 누르며) 나다~ 헬기 포함해서
추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모조리 투입해!!! (인터폰 끊었다가, 다시
누르며) 내가 직접가지.

S#10. 울산 대공원 → 울산 공업탑 로터리

울산 대공원 전경.

U 차 안. 떡볶이를 먹는 아이들을 보며 침을 흘리는 대호. 주머니엔 동전 하나 없다.

대호 : 배고파...

U : 비상식량이 있어.

대호 : (환희하며) 정말?

대호 앞으로 미니 테이블이 세팅되고, 잔뜩 기대하는 대호 앞으로 컵라면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다.

대호 :

U : 왜 그래? 유박사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인데...

대호 : (나무젓가락을 쪼개며, 시니컬하게) 그렇겠지...

벤치에 앉아 울산 대공원 풍차를 보는 대호. 옆으로 U가 주차 중이다.

대호 : 승천하는 고래라...

U : 울산 내 고래 관련된 검색이 893건이야.

대호 : (답답한 듯) 휴... 아빠가 걱정이네...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만, 이렇게 아니라
경찰한테 알려야 하는 게 아닐까?

U : 현명한 판단은 아닌 거 같은데?

대호 : 하지만, 니 말이 사실이라면...

U : 글썄, 그들이 자동차가 하는 말을 믿어줄까?

대호 : 아.. 그..그거야...

마침 당장 퍼질 것 같은 순찰차를 몰며 그 앞을 지나가는 노경사과 김경장. 노경사의
눈이 대호와 마주친다.

노경사 : 응? (눈이 휘둥그레지며) 헛!!! 너... 넌!!!

대호 : (멈칫하며) 네?

노경사 : (큰소리로) 무면허 소년?!!!!!!!

대호 : (자신을 쫓던 노경사를 떠올리곤 손사래 치며 뒷걸음질) 아... 아니에요... 난...

노경사 : 도로 교통법 11조 2절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한다!

대호 : 아우...

어쩔 수 없이 U를 타고 도망치는 대호.

노경사 : (질겁하며) 저 녀석이 또 운전을!!! 김경장~ 쫓아!!!

김경장 : 저...경장님...차상태가....보시다시피.....

노경사 : 뭐하는 거야? 어서 쫓지 않고!!!

한숨 쉬고는 차를 몰아 U를 쫓는 김경장.

U 차 안.

U : 거봐. 내가 뭐랬...

대호 : (울상이 되어) 시끄러~

울산 공업탑 로터리. 차량 정체가 있는 도로 상황. 중앙선을 넘나들며 이를 돌파하는 U.

노경사 : (분노) 저 녀석이 차선 위반까지!!!

U 차 안.

대호 : 근데 너...나까지 경찰에 잡혀가게 할 생각이야? 도대체 차선을...

U :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

당장 울 것 같은 대호의 시선에 공업 탑 로터리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의 고래 그림이 들어온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반구대 암각화를 구경했던 기억의 파편이 짧고 강렬하게 대호의 뇌리를 스친다.

대호 : 저거다!

U : 뭐? 무슨 소리야?

대호 : 승천하는 고래!

U : 두 번째 암호 말이야?

대호 : 응! 승천하는 고래라면 거기를 말하는 거야! 반구대!!! 틀림없어!

U : (검색 후 경로 모니터링) 오케이 좋았어. 최단 코스로 진행한다. 손잡이 꼭 잡아!

대호 : 으... 또? 으아악~

손잡이를 붙든 잡는 대호. 가속하며 순식간에 노경사의 추격을 따돌리는 U.

노경사 : (김경장을 보채며) 뭐해~ 좀 밟아봐!

억지로 속도를 내다가 #6의 견인차와 또 다시 충돌하는 김경장. 그들과의 재회가 반가운지 고개 돌려 씩 웃어 보이는 견인차 운전수. 격하게 머리 굽는 노경사.

S#11. 십리대밭교

추격을 따돌리자 한숨 돌리는 대호. 순간 그 앞에 헬기 한 대가 그의 시야를 가로막는다. 헬기 안에 타고 있는 것은 마이클 K다. U의 홀로그램을 통해 봤던 마이클을 떠올리는 대호.

대호 : 저 사람은?!!

어느새 마이클 일당의 차량들 5~6대가 U를 둘러싼 채, 어디론가 유인한다.

마이클 : (이어폰으로 명령 내리며) 그대로 십리대밭교 쪽으로 몰아~

정면에 십리대밭교가 보이자 소리치는 대호.

대호 : 야~ 저 다린 인도라구!!!

U : 알고 있어.

갑자기 우측 바퀴를 들며 45도로 차체를 비트는 U.

홀로그램이 뜨며, 새로 부착한 adhesive 타이어의 기능이 작동된다.

그대로 십리대밭교의 아치 옆면을 타고 롤러코스터처럼 다리를 횡단하는 U.

멍하니 이를 바라보는 다리 위의 사람들에게 막혀버리는 마이클 일당들.

마이클 : (이어폰으로 명령) 뭐해?! 어서 태화교쪽으로 돌아서 쫓아!!!

태화교로 우회하는 차량들. 끈질기게 U에 따라붙는 하는 마이클의 헬기.

S#12. 울밀로

울밀로를 달리는 U. 새중간 그 뒤로 따라붙은 마이클 일당의 차량들.

마이클 : 현재 위치 울밀로! 베타, 감마 두 개 조는 고속도로 입구로 미리 가서 막아!

U 차 안

대호 : (헬기를 노려보며) 저 녀석이 아빠를 함정에 빠뜨린 녀석이란 말이지?

U : 응.

대호 : (답답한 듯) 너 미사일 같은 거 없어? 쏘버림 끝이잖아~

U : 글썄...나는 사실 군사용은 아니라서...뭐, 완전체가 되면...

대호 : (괜히 타박하며) 쳇~ 별 쓸모도 없어~

U : 너 말이 좀 심하다? (갑자기 긴급 경보, 전방 상황을 스캔하며) 1Km 앞 적대적 차량과 인원 대기 중이라...꼭 잡아!

대호 : 뭐? 또? 야! 잠깐~ (급커브) 으어어~~~

곧바로 길 밖으로 벗어나 논밭을 가로질러 산을 향해 달려가는 U.

미처 손잡이를 못 잡고 험한 지형에서 오는 심한 차내 진동에 고생하는 대호.

마이클 일당의 추격이 이어지지만, 오프로드 전용 바퀴로 부분 변신한 U가 산으로 들어가자 더는 따라가질 못한다. 더불어 숲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이클의 시선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U.

마이클 : (이어폰을 집어 던지며) 쟤장!!!

S#13. 대곡리 산지 → 반구대 암각화

울퉁불퉁한 산지를 달리는 U.

차내, 당장이라도 토 할 것 같은 대호.

대호 : 스톱~~~ 스톱~~~

U가 멈춰서면 대호가 밖으로 뛰어나와 토하려다가 멈칫한다. 대호의 눈앞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경관이 펼쳐져 있다. 다시 대호의 기억 속 한 파편이 떠오른다.

(대호의 회상) 망원경을 통해 암각화를 구경하고 있는 어린 대호. 누군가 옆에서 그런

대호를 보고 있다.

아련함에 빠져있는 대호. U의 경적 소리에 정신을 차린다.

대호 : 어...

U : 이미 장착했어.

대호 : 뭐? 언제~?

U : 방금...

대호 : (빨쭈) ...

U 차 안. 홀로그램을 통해 『에어 부스터』 내부 인식이 모니터링 되고 있다.

대호 : (혼잣말) 이상해...분명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생각이 나질 않는단 말야...

U : 무슨 말야?

대호 : 아냐...

이 때 'install successful' 알림창이 뜬다.

대호 : 그건 그렇고, 이번엔 무슨 기능이야?

U : 지금 보여줄께.

갑자기 차체 아래로 부스터가 가동하며, 비행을 시작하는 U.

대호 : 어어어?

암각화를 넘어 착지하는 U.

대호 : (대환호) 우와아아아~~~ 이건...굉장하다!

U : 쓸모없다며?

대호 : 응...아...취소취소.

U : 어차피 1분 이상 비행은 불가능해.

대호 : (미션 알림 창이 뜨자) 응?

다음 미션이 등장한다. 'Last Password.....'

대호 : 드디어 마지막 미션이다!

.... ‘그대에게 마음을 전하다’ 순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대호.

U : 이걸 검색이 불가능하네...

S#14. 번영교의 한 카센터 (저녁)

만신창이가 된 순찰차를 뒤로 하고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노경사와 김경장.

노경사 : (갑자기 좌절하며) 난 경찰 자격이 없어!!

김경장 : (또 뛰냐는 표정으로) 네?

노경사 : (절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올바른 사회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 내가 무슨 경찰자격...

김경장 : (말 끊으며 잡아끈다) 또 시작이다 또또...아유...밥이나 먹으러갑시다.

S#15. 마이클 일당의 아지트

고개 숙인 채 마이클의 눈치를 보며 서있는 사내들.

지도를 보며 지금까지의 이동경로를 살피며 고심하는 마이클 K.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마이클 : 유박사에 대한 자료들 모조리 가져와봐. 사소한 것 하나 빼놓지 말고 모조리!
특히 가족들에 대한 자료들은 살살이 끊어와!

S#16. 장생포 (밤)

울산 공단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U와 대호.

답답한 듯이 한숨을 쉬는 대호.

대호 :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마음을 전하다니...

U : 글썄. 분명한건, 암호들은 모두 너와 관련된 것 같아. 박사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정보를 너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놓으신 것 같애.

대호 : 그래...그래서 내가 찾아내야 하는 건데... (문득 궁금하다는 듯) 근데 넌 어디서

태어났어? 아니 만들어졌냐고 물어봐야 하나...?

U : 현 위치에서 북동쪽 15Km 지점에 미래 자동차 특수 연구실에서 제조됐어.

대호 : (고개끄덕이며) 응...사람처럼 대화하곤 있지만...기계는 기계니까...

U : 내가 단순히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거 같은데?

대호 : (피식 웃으며) 그래~ 미안. 우린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U : 친구...? 음...그거 듣기 좋네. 그런데 난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대호 : 응?

U : 그러니까...난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했던 말야...

대호 : 형제? 푸하하...야야 그건...좀...킁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랑 나랑 어떻게 형제....

U, 문을 열어 잠그고 모든 불을 꺼버린다.

대호 : 뭐...뭐야...너 지금 빠친 거야? 그...그런 거야?

U :

대호 : 푸학~ 알았어 알았어. 기계가 빠치...아...아니지. 아니지. 뭐 어쨌든. 너 정말 재밌는 애구나. (전경 바라보며) 그래~ 같은 아버지를 뒀으니 우린 형제야. 니 말이 맞아... (잠시 정적) 아빠가 나나 엄마보단 널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했지만...

U,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

U : 아버지께 많이 섭섭했구나...

대호 : 아냐. 아빠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고...어쩔 수 없으니까.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다만 돌아가신 엄마 때문에 가끔 아빠한테 섭섭했었지.

U : 음...

대호 : 특히...엄마가 많이 아프셨을 때... 힘드셨을텐데... 한 번도 아빠를 원망하신 적이 없어. 늘 연구소에 쳐박혀 일주일에 한두 번 고작 문병 하는게 다였지만, 엄마 그마저도 괜찮다고 하셨어. 일만 신경 쓰라고,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지.

U : 이거 한번 볼래?

대호 : 응...?

대호, 차안으로 들어간다. 화면을 통해 엄마와 대호에 관한 사진들이 보여 진다.

대호 : 이...이건...

U : 박사님이 지난 15년간 연구소에만 계셨으니, 아마 너나 엄마께 신경을 못써드렸을

거야. 하지만 늘 말씀하셨지. 내가 이 연구를 완성하게 된다면 자신에게 이 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대호 : 어떻게 나가..이걸...?

U : 박사님이 날 완성한 후 가장먼저 입력한 데이터가...바로 이거였어.

대호 : 아빠...

마지막 사진. 간절곶에서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난다.

대호 : 엄마... (지긋이 눈을 감는다.)

잠에 빠져드는 대호.

『대호의 꿈』

『신불산 역새 평원을 노니는 대호. 그런 대호를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대호
엄마의 뒷모습.

대호도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며 해맑게 웃는다.

대호 : (O.V) 엄마!

망원경을 통해 반구대 암각화를 보고 있는 대호. 옆에서 그런 대호를 따뜻한 시선으로 내려보고 있는 엄마. 대호가 고개 돌려 엄마의 얼굴을 올려보지만 역광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

대호 : (O.V) 엄마!

엄마가 대호를 들어주면, 대호가 커다란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다.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를 올려다보며 활짝 웃는 대호. 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엄마의 손길.』

눈을 뻘쩍 뜨는 대호.

대호 : 엄마!!!

U : 벌써 일어났어?

대호 : 간절곶으로 가!!!

U : 간절곶?

대호 : 마지막 암호 말이야~ 뭔지 알 것 같아!

S#17. 당월로 (밤)

공단 사이로 쪽 뻗어있는 고요한 당월로. 간간이 컨테이너 트럭들이 묵직하게 달리고 있다.
그 사이로 소리 없이 달리고 있는 U.

U 차 안.

U : 이해가 잘 안돼.

대호 : 뭐가?

U : 갑자기 잠들었다 일어나서는, 답을 찾아 내냐?

대호 : 꿈을 꿨어?

U : 꿈? 인간들이 잠든 후,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는 기억을 되새기거나 한다는 가상
현실 말인가?

대호 : 폼...너한테 그냥 가상현실이구나...

U : 뭐, 그렇지. 난 꿈을 꿀 일은 없으니까. 그럼 꿈에서 뭔가 봤다는 거야?

대호 : (곰곰이 생각하며) 글썄... 나도 설명하기가 어렵지만...분명히 맞을 거야.

U : (대호의 미소에 잠시 정적)...참 신기하네...

대호 : 또 뭐가?

U : 지금 대호가 웃었을 때 특이한 파장이 감지돼서...

대호 : 뭐?

U : 보통 때 인간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파장과는 뭔가 조금 달랐는데... 설명하긴 좀
어렵네. 나도 처음 느낀 거라...

한 편, 그들보다 한참 뒤로 카메라 이동하면 U과 동일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노경사와
김경장의 뚱차. 코 골며 자고 있는 노경사.

김경장 : (그런 노경사를 보며 원망)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노경사 : (잠꼬대) 널 무면허 혐의로 체포한다!!!

김경장 : 깜짝이야~

S#18. 간절곶

해안 길에 멈춰서는 U. 차에서 내리는 대호. 아직 새벽녘이라 어둡하다.

대호 : 엄마랑 자주 오던 곳이야...

U : 신호가 잡혀.

대호 : (우체통을 가리키며) 저기지?

U : 맞아. 어떻게 알았지?

대호 : 아까 내가 꿈 꾸어 엄마랑 저 곳에 소원을 적어 넣는 꿈이었어...

거대 우체통으로 다가가는 대호. 마지막 부품인 『메가 엔진 칩』을 발견한다.

U : 좋아~! 결합~!

대호 : 어?! 잠시만~

우체통 깊숙이 손을 집어넣는 대호. 여기저기 만지작거리더니 편지 한편을 꺼낸다.

대호 : 찾았다~

U : 그게 뭐야?

대호 : 아빠한테 쓴 편지. 실은 우체국 아저씨가 가져가지 말라고 양면테이프로 옆면에 붙여놔있거든~

U : 무슨 내용인데?

대호 :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주로 아빠가 밉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대호가 편지를 뜯으려는 순간, 갑자기 거대한 철그물이 U를 뒤덮는다.

대호 : U!!!!

어느새 사방을 에워싼 마이클 일당의 차량들에 연결된 철그물이 U를 단단히 포박하고 있다. 마이클 수하들이 대호를 둘러싸고, 헬기가 내려오더니 마이클 K가 내린다.

마이클 : (미소) 드디어 잡았군~

대호 : 당신...! 당장 U를 풀어줘!!!

마이클에게 달려드는 대호. 그러나 S#2의 사내1이 대호를 붙들고 잡는다.

마이클 : 이런 꼬마 녀석한테 이렇게 애를 먹을 줄이야.

대호 : (사내1에게서 벗어나려고 기를 쓰며) 시끄러~ 이 나쁜 녀석아!!!

마이클 : 저런 저런~ 아버지처럼 점잖게 있어야지... (대호얼굴로 바짝 들이대며) 안 그래?

대호 : (분노로 일그러지는 얼굴) 이익...

마이클 : 자~ 곧바로 U를 신고 일본으로 출항할 준비를 하도록.

수하들 : 넵!!!

그 때 갑자기 차량 멈추는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비춘다.

김경장 : (O.V) 아~ 저 어제 하루 종일 운전한 거 하시면서 이러십니까?

노경사 : (차에서 내리며) 니가 여기 오자며~

김경장 : 나 원 참~

순간 고개를 동시에 돌리는 노경사와 김경장. 경직되어 있는 마이클 일당들.

하지만 노경사의 눈에는 대호의 모습이 가장 먼저 들어온다.

노경사 : (대호를 가리키며) 넌!!!!!!!!!!!!!!!!!!!!!!!!!!!!!!

대호 :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절 납치하려 해요!!!

노경사 : 뭐? (대호 주위를 훑어보고는 그제야 정황이 심상찮음을 깨닫고) 당신들 뭐야?

마이클 : (귀찮게 똘똘한 표정으로) 쳇~ 처리해.

노경사, 김경장을 포위하는 마이클 일당들.

김경장 : (건장한 사내들의 기세에 당황하며) 이봐~ 이봐~ 우리 경찰이야~~

마이클 : 뭐해?! 어서 해치워!!!

달려드는 사내들. 용감하게 맞서는 노경사와 김경장.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점차 물리기 시작한다. 이를 보며 비웃는 마이클과 사내1.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내1의 손을 깨무는 대호.

사내1 : 으아아악~~~~

재빨리 메가 엔진 칩을 들고 U에게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대호.

그러나 U 목전에서 마이클에게 뒷덜미를 잡힌다.

마이클 : 이 녀석...

대호 : U!!!

그러자 U가 제자리에서 차체를 돌려 마이클 K의 뒤를 치고, 대호는 그 틈을 타 철그물

아래로 기어들어가 U에 탑승한다. 메가 엔진 칩을 U에 장착하는 대호.

U의 홀로그램. 전체적인 U의 구조가 바뀐다. 업그레이드 모니터를 통해 기존에 업그레이드 되어있던 부분들이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홀로그램과 동일하게 전체적인 대변신을 하는 U.

난투극 중이던 모두가 멈춰 서서, 화려한 U의 변신을 바라본다. 제트 엔진으로 무장한 진정한 슈퍼카로 완성 된 U.

U : (나직하게) 슈퍼카 U 하이브리드. 완전체 완성. 가볼까?

U의 묵직한 시동 소리가 울린다.

마이클 : 뭐해! 어서 막아!!!

철그물에 연결된 마이클 일당의 차량들이 풀가동, U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한다.

U의 모니터를 통해 한 층 업그레이드 된 '기가 에어 부스터'가 가동되는 신호가 들어온다. 범상찮은 시동 소리와 함께 제트기 수준의 엔진이 가동되며, 그물을 뒤집어 쓴 채 공중으로 떠오르는 U. 이에 마이클 일당의 차량들이 점점 허공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물에 연결된 차량에 마이클 일당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U : 하늘 한 번 날아 볼래?!

간절곶 낚시터

고요함 속에 새벽 낚시 중인 중년남.

그의 앞으로 마이클 일당 차량들이 철그물 체로 줄줄이 추락.

바닷물 세례를 맞고 황당한 표정의 중년남.

허공에 뜬 U. 질린 얼굴로 이를 올려보고 있는 마이클 일당들.

그대로 비행하여 간절곶 등대 위로 잠시 착지하는 U.

헤드라이트를 켜며 마치 등대처럼 마이클 일당들을 하나씩 비춘다.

U : 하나, 둘, 셋... 총 열다섯 명!

등대 꼭대기에 와이어 끈을 고정하는 U.

U의 모니터를 통해 adhesive 타이어에서 업그레이드 된 Hyper Dive 타이어가 가동된다.

그대로 나선으로 등대를 타고 내려와 와이어 끈을 끌고 일당들 사이를 종횡무진하는 U.

너무 빨라 형체조차 보이지 않고, 섬광만이 이리저리 번쩍이고, 그 때마다 섬광에

휩쓸리듯 마이클 일당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U가 멈춰 서자, 등대 기둥에 나란히 둘러진 채 꿈뽕 묶여있는 마이클 일당들.

대호 : U~~~ 뒤!!!

어느 새 헬기에 몸을 싣고 도망가고 있는 마이클.

마이클 : (직접 헬기를 조종하며) 두고 보자!!!

간절곶 절벽을 향해 달리는 U.

그대로 질주하여 허공으로 날아올라 마이클의 헬기를 향한다.

그렇게 간절곶의 일출 광경 앞으로 멋진 광경이 펼쳐지며 White out.

어느새 주위는 밝아지고, 출동 나온 경찰들과 노경사가 마이클과 그의 일당들을 연행하고 있는 광경이 비춰진다.

그리고 대호 앞으로 멋지게 드리프트 하고는 문을 여는 U.

U : (대호 향해) 진정한 슈퍼카 U 하이브리드가 첫 탑승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호 : 영광이야!

S#19. 울주 경찰서 앞

입구에서 근무 중인 의경.

요란하게 등장하는 U. 멋지게 급커브를 틀며 주차.

운전석 방향에서 내리는 대호를 본 전경이 화들짝 놀란다.

의경 : (기겁) 무... 무면허???

이 때 의경의 어깨에 손을 얹는 노경사와 김경장. - 지난 격투로 인해 반창고투성이다.
괜찮다고 의경에게 손짓하고는 대호에게 접근.

대호 : 안녕하세요~

노경사 : 아빠 모시러 온 거니?

대호 : 네~ 감사합니다. 노경사님.

노경사 : 어서 가 보거라~ (들어가려는 대호를 다시 부르며) 참~ 나 이제 노경위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승진했거든!

김경장 : (손가락 V) 난 경사~~~

활짝 웃어 보이는 대호. (White out)

S#.20 엔딩 시퀀스

(White on) 태화강변 도로를 달리는 U. 차안.

대호 : 아빠, 이거.

유박사 : 이게 뭐니?

대호 : 옛날에 엄마랑 간절곶에 놀러갔을 때, 아빠한테 보내려던 편지야.

유박사 : 뭐?

유대호 : 읽어봐~ (U에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U : (한결 인간적인 감성이 스며든 말투로) 문수축구경기장으로 고고씽~

유박사 : 고...고씽? (무척 놀란 투로) U~ 너 말투가 왜 그래?

U : 제 동생이 가르쳐 준 최신 유행어거든요.

대호 : 뭐 동생? 야! 넌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U : 어허 무슨 소리. 넌 14살이고, 난 15년 전부터 개발이 시작됐으니까, 내가 형이지!

대호 : 말도 안 돼! 태어나야 나이를 먹지!

U : 허허 애가 뭘 모르네. 우리나라는 엄마 배속에서부터 나이 먹는 거 몰라? 난
14년 동안 엄마뱃속에 있었을 뿐이라고!

대호 : 뭐?

엔딩 크레딧과 함께 도로 달리는 U의 모습 보여지고, out voice로 진행.

유박사 : 허허, 윤석아. 편지 내용이 이게 뭐야? 아빠 언제와, 아빠랑 안 놀아, 아빠
미워...전부...

U : 박사님, 그 땐...저라도 그렇게 썼을 걸요?

유박사 : 뭐?

다함께 : 하하하.....

밝고 쾌활한 BG 볼륨업.

- 끝-